

정오표 (Erratum)

한국심리학회지: 상담 및 심리치료
제 27권 3호 583-611 (2015)

수정 전(Error)	수정 후(Correction)
<p>(서론) 또한 자기자비와 타인자비의 증진을 목적으로 자비로운 마음 훈련(Compassionate Mind Training; Gilbert & Proctor, 2006), 자비중심치료(Compassion Focused Therapy; Gilbert, 2010)가 개발되어 국내외 자기자비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으나, Neff(2003a)가 제안한 자기자비 3요인 중 주로 자기친절을 증진시키는 기법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자기자비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.</p>	<p>(서론) 또한 자기자비와 타인자비의 증진을 목적으로 자비로운 마음 훈련(Compassionate Mind Training; Gilbert & Proctor, 2006), 자비중심치료(Compassion Focused Therapy(Gilbert, 2010)가 개발되어 국내외 자기자비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으나(예: 노상선, 조용래, 2013), Neff(2003a)가 제안한 자기자비 3요인중 주로 자기친절을 증진시키는 기법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, 자기자비의 세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.</p>
<p>(논의) 본 연구는 현재 개발 및 효과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자비 프로그램이 부재한 가운데, 자기자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기자비의 치료적 가치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. 비임상집단과 경계선 성향자들에게 자기자비 개입이 유효함을 검증하였고, 심리적 건강의 개선뿐만 아니라 유지에도 자기자비 개입이 효과적임을 보여줌으로써 임상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.</p>	<p>(논의) 노상선과 조용래(2013)는 경계선 성향자를 위한 자기자비 함양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. 이 프로그램은 외상성 장애의 치유단계(Herman, 1997/2007)와 자비심 훈련(Gilbert & Procter, 2006)에 토대를 두었고, 마음챙김을 포함해 Neff(2003a,b)의 자기자비 개념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.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Neff(2003a,b)의 자기자비 세 요인들에 주된 초점을 두고 각 요인별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상선과 조용래(2013)의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. 또한 노상선과 조용래(2013)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향자가 주된 개입의 초점이었다면,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집단의 우울, 경계선 성향,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과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.</p>
<p>(논의) 적대적으로 지각되는 대인관계(Kernberg, 1975)를 극복하고 연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보편성 개입이 경계선 성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</p>	<p>(논의) 적대적으로 지각되는 대인관계(Kernberg, 1975)를 극복하고 연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보편성 개입이 경계선 성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</p>

<p>추측된다. 또한 경계선 성향이외에도 자기위협에 예민한 특성을 지닌 심리적 증상을 다룸에 있어 자기자비를 함양하는 치료적 개입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.</p>	<p>추측된다. 한편, 경계선 성향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자비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(노상선, 조용래, 2013), 참가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하고 정서조절곤란, 부적 정서, 우울, 불안, 스트레스 반응수준 및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. 이 연구와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초점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나, 두 연구 모두 경계선 성향자들에게 자기자비와 관련된 접근이 유용함을 시사한다. 또한 경계선 성향이외에도 자기위협에 예민한 특성을 지닌 심리적 증상을 다룸에 있어 자기자비를 함양하는 치료적 개입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.</p>
	<p>(참고문헌) 노상선, 조용래 (2013).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를 위한 자기자비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. <i>한국심리학회지: 임상</i>, 32(1), 97-121.</p>
	<p>(참고문헌) Herman, J. L. (2007). <i>트라우마</i>. [<i>Trauma and recovery</i>]. (최현정 역). 서울: 플래닛. (원전은 1997년에 출간).</p>